

함축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시트콤 담화 분석Ⅱ

- 함축의 자질 및 참가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

양경미**

目 录

1. 서론
2. 함축의 자질
 - 1) 보편성
 - 2) 동태성
 - 3) 취소성
3. 연령에 따른 함축의 사용
 - 1) 성인의 함축사용(변화)
 - 2) 성인의 함축 미사용(배려)
 - 3) 어린이의 함축 미사용(불능)
4. 예외원리와 의사소통의 성패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 언어(의사소통을 위한 담화)가 대부분 자연적 의미 보다는 비자연적의미(함축)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함축은 대부분의 담화에서 사용되며, Grice의 협력원리와 및 대화격률의 위반은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등장,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본고는 양경미(2015), ‘함축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시트콤 담화 분석Ⅰ-대화의 격률을 중심으로’의 후속논문으로 동일한 언어자료를 사용하여 함축의 자질 및 연령에 따른 사용상황을 고찰한다. 이하에서 전편 논문은 <담화분석1>로 약칭함.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담화분석1>의 예1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예1.

- 1) 엄마 : 우리 △△이 목욕 했더니 뽀얗네.
- 2) ○○ : (비아냥거리며) 죄송하네요~.
- 3) 엄마 : (○○을 향해 친근하게) 네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엄마는 목욕 안 해도 뽀얀 네가 신기하다.
- 4) △△ : ……

<담화분석1>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이는 발화2)에서 엄마의 발화1)에 대해 관련성과 방식의 격률을 위반했다. 즉 발화1)은 엄마가 △△에게 한 말이므로 ○○가 대답할 시점이 아니며(관련성 위반), 뜬금없고, 모호한 답변으로(방식 위반) 고의로 엄마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그런데 이러한 격률의 위반이 곧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결국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¹⁾ 이는 함축의 자질 및 발화자의 함축사용 능력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엄마는 발화1)에서 함축을 중의적으로 사용하고(①말 잘 듣는 △△가 예쁘다, ②○○이도 목욕을 했으면 좋았겠다), 발화3)에서 ○○의 발화2)의 함축(야단치시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을 이해하여, 자신의 두 번째 함축(②○○이도 목욕을 했으면 좋았겠다)을 취소한다. 이 때 정작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대화의 상대방인 △△는 침묵한다.

예1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축은 보편적으로 사용 된다 2. 함축은 추리된다. 3. 함축은 취소되기도 한다. 4. 일정 연령이상의 화자는 함축을 이해하며 사용할 줄 안다. |
|--|

1) 구체적인 예는 <담화분석1>3장 참조

본고의 제2장에서는 상기의 내용과 관련한 합축의 주요 자질인 보편성, 동태성, 취소성을, 제3장에서는 연령에 따른 합축의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어 시트콤 담화코퍼스²⁾를 언어자료로 사용한다.

2. 합축의 자질³⁾

합축의 대표적인 자질인 ‘보편성’을 기초로 하여, 합축은 화자와 청자의 목적 및 역할 변화 등 여러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며(동태성), 화자 자신 또는 청자에 의해 취소되기도 한다(취소성). 실제로 합축의 이러한 자질들은 한 담화에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담화들은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여,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자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보여 준다. 편의상 대표적 자질을 위주로 살펴보자.

1) 보편성

예2.(HBB scene3)⁴⁾

- 2) ‘담화코퍼스’로 약칭함. ‘家有儿女’ 제1부의 제1집(下马威上), 제4집(好爸爸), 제14집(添个大件儿), 제43집(随手关灯), 제89집(手拉手)을 언어자료로 사용함. <담화분석1>의 언어자료와 동일하며, 코퍼스의 선정 및 전사, 분석 방법은 <담화분석1>의 2장 참조.
- 3) 이미 알려진 대화합축의 특징으로는 보편성, 취소가능성, 분리가능성, 추리가능성, 비규약성, 불확정성 등이 있다. Levinson(1992)참조.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 취소가능성, 동태성을 합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고 담화분석을 시도한다. 본고는 이하에서 취소가능성을 취소성으로 약칭한다.
‘보편성’은 姜望琪(2012), 「会话含义新解」, 『外语与外语教学』, 第3期, 16쪽 참조. ‘동태성’은 姜望琪(2012), 「会话含义新解」, 『外语与外语教学』, 第3期, 19쪽 참조. ‘취소성’은 王晓飞(2012), 「论取消会话含义的潜在可能与实际发生-兼驳“含义不可取消论”」, 『外语与外语教学』, 第3期, 40쪽 참조.
- 4) 예2이하의 담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해 보자. 梅는 刘梅, 夏는 夏东海, 星은 刘星, 姥는 姥姥, 雪는 夏雪, 雨는 夏雨, 爷는 爷爷이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夏东海와 刘梅는 재혼 커플로 刘星은 刘梅의 아들, 姥姥는 刘梅의 어머니며, 夏雪와 夏雨는 夏东

1梅 : ei , 他跟你說什么呢 ?

2夏 : 沒說什么。

我发现刘星这孩子挺逗, (呢)
而且对我要求还(후지) 不高。

‘너 뭐했니?’에 대해 ‘별거 안했어’라고 답변하는 식의 대화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접쌍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굳이 특정한 언어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반대화함축에 해당한다(보편성). 그런데 예2는 이러한 일반대화함축이 인접하는 다음 발화에 의해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별거 아니다’의 발화가 ‘星은 재미있는 아이이며, 나에게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다’에 의해 취소되고(취소성), 후자는 ‘아이가 귀엽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함축을 갖는다. 다른 예를 보자.

예3.(SSGD scene6)

28梅 : 您看您也知道吧?

这上了年纪的人哪

睡眠多重要啊。

那跟几度电比起来

当然是身体第一了。

您说是不是爸? → 28의 함축: ‘친정어머니의 불켜고 자는 습관을 내버려 두라’

29爷 : 听你们这意思,

就让她这么一直浪费下去了?

30梅 : 哎呀,

我们也不是这意思。 → 28의 함축취소

31爷 : 那你不是这意思,

你们也不想个办法给她治治?

32梅 : 嘿, 你说这简单劲儿!

怎么治呀?

上医院?

海의 딸과 아들, 爷爷는 夏东海의 아버지이다. 아이들의 연령은 夏雪, 刘星, 夏雨의 순서로 좌측이 연령이 높다.

医院也没有说睡觉不关灯科。

33夏：是呀！

看来啊，
这事还真没什么辙。

34爷：没什么辙？

嘿，我就偏不信了！
我看她这病啊，
还非得我给她治治不行！

28에서 梅는 “전기소비에 비해 노년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므로 밤에 불을 켜고 자야 잠을 잘 수 있는 姥(친정어머니)의 습관을 묵과해 주기 바란다.” 고 말한다. 29에서 爷는 梅의 발화를 재빨리 이해하고 “너의 말뜻은 姥를 계속해서 죽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이냐고 반문하고(梅의 함축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편성), 30에서 爷의 직설적인 발언에 당황한 梅는 오히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급히 변명한다(취소성). 이후의 대화내용을 통해 28의 함축이 30에서 진정으로 취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화제는 이미 다른 방향(姥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자)으로 흘러가고 爷는 더 이상 梅를 추궁하지 않는다.

한편, 예3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梅가 함축을 취소할 때 “우리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라며 직접화행을 사용해 부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함축의 취소는 언어적으로 고정화 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동태성

예4.(TGDJ scene12)

11姥：你妈说了，啊！

让你们呀再坚持几天。
等她回来啊，
就给你们做好吃的，啊！

12孩子们：姥姥！

- 13雨：坚持了一个星期了，
怎么还坚持呀？
- 14星：他们为什么每天早出晚归，
神神秘的呀？
- 15雪：姥姥！
您就告诉我。
爸爸妈妈到底干吗去了？
- 16姥：他们去了呀。
- 17孩子们：去哪儿了？
- 18姥：他们不让说。
- 19孩子们：姥姥！
- 20星：他们肯定拿着稿费，
出去花天酒地去了。
- 21雪：对！
他们一定是，
故意躲着我们。
- 22雨：他们太不像话了！
- 23姥：瞧瞧你们这些孩子，啊！
瞎说什么呀！
你们呀，
是太不机灵爸爸妈妈的心思了，啊！
你爸爸妈妈呀，
他们正在为了您们啊，
练功哪！

예4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夏는 보너스로 1만원을 받게 되었다. 3명의 아이들은 그 소식을 반기며, 각기 자신을 위해 1만원을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열떨결에 모두에게 허락한 夏, 梅 부부는 곤란한 상태에 이르고, 상금을 받아 비용을 마련코자 무도대회에 나가기로 결정, 훈련에 돌입하여 최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있다.

예4의 발화직전에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본 지가 오래 되어 할머니에게 그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11에서 姥는 “네 엄마가 몇 일만 버티면 돌아와 맛있는 걸 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12~15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이 수상하다면서 姥에게 부모의 행방을 따져 묻는다. 16에서 姥는 “그들은 말이야...”로 말을 시작한다. 17에서 아이들이 말은 가로채서 “어디 가셨어요?” 하며 촉각을 세운다. 18에서 姥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라며 망설인다. 19~22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보너스를 다 써버려서 자신들을 피하고 있는 거라며 부모를 오해한다. 23에서 “요놈들 보소...” 하며 답답해진 姥는 드디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위 분석에서 姥의 발화는 아이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거짓말화(11)에서 진실된 발화(23)로 옮겨가고 있다(동태성). 또한 姥의 모든 발화는 합축을 담고 있다(보편성).⁵⁾

3) 취소성

예5.(haobaba scene1)

10姥: 你在学校里到底干了什么了?

11星: 我发誓, 绝对是一些小事情! ----작은 일

12姥: 小事? ----작은 일?

13星: 不过这些小事情攒起来,
听着就很严重了。 ----심각한 일

您要是让我妈知道了,
您又得肝儿疼了!

14姥: 我怎么会肝儿疼啊! 不会的。

啊? 我看哪, 你屁股疼倒是真的。

15星: 姥姥, 您忘了。

我可是您的小心肝儿呀!

16姥: 小滑头!

5) 3장-1)에서 다를 예8과는 달리, 예4의 姥는 특별한 의도로 어린이와의 대화에서 여전히 합축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姥는 夏, 梅의 행방을 감추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곤란한 질문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고의로 모호한 발화 및 답변의 회피를 통해 ‘묻지 말라’는 합축의 의미를 실현한다.

11에서 暹은 자신이 학교에서 저지른 일이 ‘작은 일’임을 강조해서 말했다. 평소 暹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姥는 미답지가 없어서 “작은 일이라고?” 라며 묻는다. 웬지 좀 찢리는 것이 있는 暹은 13에서 이 작은 일들이 모이면 좀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미리 포석을 깔고(취소성), 엄마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면 자신이 혼나고 姥는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속상하게 될 것이 라며, 姥에게 학부모회의에 엄마 대신 참석해 달라고 간청한다. 14에서 姥가 暹을 놀리고 싶은지 모른 채 하자, 15에서 暹은 姥가 평소 자신을 보배로 여기는 점을 상기시킨다.

暹의추리과정

엄마가 학부모회의에 참석→ 劉暹이 학교에서 말썽부린 일이 드러남→엄마가 자신을 때림→자신이 맞아서 아픔→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아픔→할머니의 간이 아프게 됨 ⇒ 그렇지 않으려면 할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야 함.

예5을 분석해 보면 11의 ‘작은 일’이 12의 재확인(‘작은 일?’)을 거쳐 13에서 취소되는(큰 일)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5에서 暹은 일련의 추리를 통해 어찌해서 할머니가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어서, 15의 “내가 당신의 보배잖아요!”라는 발화는 ‘姥가 내 소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함축으로 사용되었다(보편성).⁶⁾ 실제로 이후 姥는 자신이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예를 보자.

예6.(haobaba scene6)

9姥：家长会上老师说什麼呀？

10夏：(叹气) 说得我脑袋都大了。

11姥：都是一些小事儿吧？

6) 어린이 화자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함축의 사용과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함축의 보편성을 더 잘 증명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3장 참조.

- 12夏: 哼, 刘星把班里所有的椅子都给拆了。
 13姥: 你拆班里椅子干吗呀?
 14星: 老师发现以后, 我又把那螺丝给拧回去了
 15姥: 拧回去了, 算了。
 16夏: 你还在班里搞什么天女散花人工降雪,
拿着纸片可着教室里撒, 对吧?
 17姥: 是你吗?
 18星: 嗯, 不过老师罚我做值日,
 我全部都给扫干净了。
 19夏: 那你把同学的鼻子打得哗哗流血,
 是怎么回事儿啊?
 20姥: 这是你说的小事啊?
 21星: 不是, 我又把那同学送医务室去啦。
 22姥: 哎呀, 你这事啊,
哪一个也不算小事啊!
 23夏: 其余的我也就不一一跟您列举了。
 等刘梅回来, 我慢慢地去跟她说

예6의 화제는 예5과 동일하게 星이 저지른 ‘작은 일’이다.

10에서 夏의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는 표현은 이미 그 자체가 함축의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星이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히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함축의 의미⁷⁾를 갖고(보편성), 11에서 姥는 아직도 못 믿겠다는 듯이 “작은 일들이지 않냐”는 확인의 질문을 한다. 하지만 이는 12, 16, 19를 통해 ‘작은 일’은 철저히 부정되고(취소성), 姥는 夏의 대화 사이사이인 13, 17, 20에서 星에게 이를 확인한다. 星은 14, 18, 21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덧붙여 가며 위기를 모면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姥의 20에서 “이 것들이 네가 말한 작은 일들이냐?”라는 반문과, 22에서 “어느 하나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없잖아!”라는 간접화행(함축)에 의한 단정적 발언으로 ‘작은 일’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닌 ‘큰 사고’로 인식된다.

위의 담화는 발화의 함축이 대화 참여자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

7) 전자는 일반대화함축, 후자는 특정대화함축이다.

를 잘 보여준다. 당초 예5에서 暄이 말했던 ‘몇몇 작은 일(这些小事)’은 학부 모회의에서 돌아온 夏의 보고와 暄의 자백에 의해 ‘하찮은 일’에서 ‘큰 사고’의 함축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예6의 姥, 夏, 暄간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였다(동태성). 보편성, 동태성, 취소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를 보자.

예7.(SLS scene9)⁸⁾

11姥: 那锻炼也得有个过程啊!

那也不能从鸡翅膀子一下降到白薯上去。

12梅: 您的意思是说,

先让他们在家艰苦锻炼几天。

这主意好!

13姥: 我可不是这主意啊。

14梅: 我是这主意。

我买白薯去。

15姥: 我说~

예7의 배경은 이러하다. 시골학생의 편지를 받은 暄이 이를 누나 雪와 동생 雨에게 들려주고, 夏와 梅는 시골생활과 관련한 대화에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무지와 철없음에 직면하여 아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시골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그곳은 먹을 것이 감자밖에 없다. 姥는 풍족한 도시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시골에 가서 고생할 것이 걱정스러워 梅를 말리고 싶다.

우선 예7의 관건이 되는 발화11의 의미를 살펴보자.

발화11의 의미

축자적 의미⁹⁾: 훈련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닭 붓을 먹다가 갑자기 감자를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함축1(姥의 의도): 아이들을 시골에 보내지 마라

함축2(梅의 이해): 집에서 감자 먹는 연습을 한 후 시골로 보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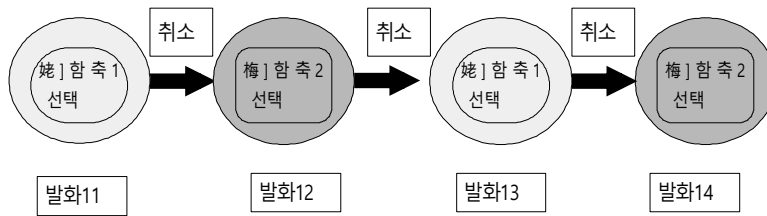
8) <담화분석1>의 예24 ‘방식의 격률 위반’에서 분석함. 더 자세한 배경설명은 본고의 예10참조.

예7의 11~14에서 합축은 사용되고 이해되었다(보편성). 11의 합축1은 12에서 취소되며, 12의 합축2는 13에서 취소시도 되지만 불발로 남고, 오히려 14에서 합축1은 철저히 취소된다(취소성).

화자의 의도라는 관점을 추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2의 梅에 의한 합축1의 취소는 고의적 이며, 13의 姥에 의한 합축2의 취소(시도)는 梅가 합축을 姥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음’ 또는 ‘못함’으로 다급해진 姥가 합축1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13의 취소(시도)는 梅가 14에서 다시 자신의 뜻을 확고히 밝힘으로써 또 한 번 취소된다.

예7의 취소성과 관련한 대화의 발전과정을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姥의 발화11의 취소과정



예2~예7을 통해 우리는 합축의 보편성, 동태성 및 취소성의 자질들이 시트콤 담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합축의 취소 시 ‘我们也不是这意思。(우리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我可不是这注意。(내말은 그 뜻이 아니야)’와 같은 관용적 표현(직접화행)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합축의 자질인 보편성, 동태성, 취소성은 어떤 화자에게서 발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즉, 성인화자는 합축의 사용이 용이하여 자신의 의도나 비언

9) 자연의미 또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

어적요소의 개입에 의해 자유자재로 사용과 취소를 반복할 수 있는 반면, 연령이 낮은 화자나 목표언어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2언어 학습자¹⁰⁾는 함축의 사용이 어렵고, 상대방의 함축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대화의 단절을 초래한다. 다음 장에서 모국어 화자의 연령에 따른 함축의 제한적 사용상황을 살펴보자.

3. 연령에 따른 함축의 사용

II장의 분석은 성인간의 담화에서 함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본장은 주로 성인과 어린이의 담화에서 함축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과 어린이의 담화에서 함축의 사용은 주로 함축 사용이 원활한 성인화자의 어린이화자에 대한 배려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때로는 제3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하기도 하고¹¹⁾, 때로는 상대방(어린이 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한편, 어린이 상호간의 담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어린이가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 저연령 참여자에 대한 배려의 거절 또는 불능으로 함축이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함축을 사용한 담화에서 저연령 어린이 화자는 상대방의 배려 부재 시, 의사소통에서 오해 또는 좌절 상태로 남는다. 예를 통해 살펴보자.

1) 성인의 함축사용(변화)

성인과 어린이의 대화체 담화에서 성인 및 고연령층 어린이의 함축사용 상

10) 제2언어 학습자의 함축사용 관련 상황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낮은 모국어 화자의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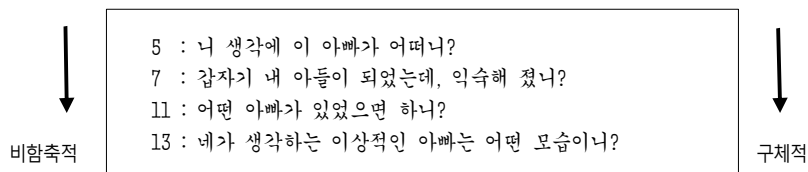
11) 예4 참조.

황을 보자.

예8.(HBB scene2)

- 5夏 : 我知道! 你现在两门功课加起来得满分。
没关系。我告诉你啊。
好像我像你这么大的时候啊, 学习还不如你呢!
我其实就是想问问, 你觉得, 我这个爸爸感觉怎么样?
- 6星 : 这…
- 7夏 : 换句话说, 就是你突然成了我的儿子, 习惯吗?
- 8星 : 习惯?
- 9夏 : 不要有顾虑! 有话直说!
- 10星 : 哎呀! 反正我生下来就给人当儿子啦。给谁当都一样!
- 11夏 : 这话倒也对阿。再换句话吧!
你希望有一个什么样的爸爸?
- 12星 : 这事…我说了算吗?
- 13夏 : 这事你说了还真不算。
但是, 你理想中的爸爸是什么样的?
你可以告诉我, 我往那边靠拢啊!
- 14星 : 真, 真的吗?

예8에서 夏는 얼마 전 梅와의 재혼으로 부자관계가 된 아들인 星과 진정한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그는 星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아빠를 바라는지 알고 싶고, 그와 친해지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질문으로 대화를 시도하지만(5, 7, 11, 13), 星은 시종일관 夏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에 더 주목한다. 그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답변을 보류하며 탐문하다가, 13에서 夏의 진정성 있는 약속을 듣고 비로소 경계심을 푼다. 14에서 星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夏의 4차례 대화시도를 살펴보면 발화가 함축적 표현에서 점점 비함축적 표현으로, 추상적 표현에서 구체적 표현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8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과 고연령층 어린이는 함축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안다. 위의 경우는 성인이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해, 혹시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를 이해를 못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우려로 인해 어린이를 배려하면서 발화의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린이가 함축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 될 때, 성인은 당연히 함축적 표현을 포기한다.

다음으로 세 명의 각기 다른 연령층의 참여자가 나눈 대화에서의 함축사용 상황을 보자.

예9.(SLS scene1)

12梅 : 所以美国那么多胖孩子。

你瞧你都胖成什么样了,
还吃呢。

我告诉你。

你呀,

就欠你们学校老师,

带你们也到贫困山区去手拉手去。

13雨 : 什么意思啊?

14星 : 意思就是啊,

不让你吃冰激凌。

15雨 : 嗯~

예9의 담화참여자는 차례대로 梅, 雨, 星이다. 이 중 雨는 아직 함축(간접화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령층에 속한다. 12에서 梅는 미국어린이의 예를 들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똥똥해 진다.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빈곤지역을 체험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그만 먹

어라’, ‘너희들은 힘든 생활도 좀 해보야 한다.’는 함축을 표현한다. 13에서 雨가 12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되묻는데, 14에서 星은 梅의 함축(거절화행)을 이해하고 雨를 향해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거야.”라고 쏘아붙인다. 그런데 이는 梅발화의 전반부의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어린이인 星이 성인인 梅의 발화의 함축을 이해는 하지만, 성인처럼 자신보다 저연령층인 대화의 약자 雨를 배려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함축의 이해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실패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첫째, 함축을 이해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저연령층 어린이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 둘째, 사회화가 덜 된 어린이가 상대방의 함축을 이해하고 더 이상의 소통을 거절하는 경우. 셋째, 성인간의 대화담화에서 참여자 중 한 명이상이 의사소통의 거절 의사를 가진 경우이다.

다시 예9로 돌아가 보자. 14에서 星은 비록 발화의 주요 의미를 雨에게 전달하였으나, 그것이 梅의 12발화의 전체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15에서 雨는 “음~”이라고 말하며, 12에 대해 14의 의미만을 이해한 채 대화가 종료된다. 이는 12에 대한 부분적 이해이며, 雨가 아직 함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령임을 보여 준다. 예9의 담화종료 및 의사소통의 실패는 앞선 함축의 이해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실패 원인 중 첫째, 둘째와 모두 관련이 있다.¹²⁾

2) 성인의 함축 미사용(배려)

성인과 어린이의 대화에서 성인이 함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

예10.(SLS scene3)

8雪: 这还用问吗?

现在看星星.

比看动画片时尚多了。

12) 의사소통의 성공과 실패는 4장 참조

- 9星：就是呀。
 10梅、夏：啊？
 11夏：你真这么想啊？
 12雪：嗯。
 13星：要不然就是孩子家长把电视锁起来了，
 怕影响孩子学习。
 14雪：嗯。
 중략
 19夏：对。
你们怎么能这么想问题呢？
你们要是老这么认识问题的话，
那就大错特错了。
 20梅：对！
这是有本质区别的。
ei, 看腻了动画片，
而去看星星。
跟根本就没有电视，只能去看星星，
它性质是不一样的。
 21夏：对！
就跟这个爱听鸟叫，
和只能听鸟叫，
性质也不一样。
这里边，
都有很深很深的内涵，
你们知道吗？

예10에서 아이들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TV를 보지 않고 별을 보는 사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8에서 雪는 유행 때문이라고 하고, 13에서 星은 부모가 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에 당황한 梅와 夏부부는 20과 21에서 시골아이들이 별을 보고, 새의 지저귀음을 듣는 이유는 시골에는 TV가 없고, 자연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임을 자상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이처럼 성인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와 대화할 때는 최대한 함축의 사

용을 자제함으로써 어린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함축의 배려적 미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린이의 함축 미사용(불능)

어린이들 간의 대화는 성인간의 대화와 달리 비함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함축의 사용이 빈번하고 원활해 진다.

예11.(HBB scene5)

1雨: 哎, 姐姐, 家长会很可怕吗?

2雪: 这个嘛, 嗯, 好学生啊和坏学生的
感觉是不一样的。

3雨: 怎么不一样的?

4雪: 就这么说吧,

好学生呢, 就感觉到温暖和阳光,
而坏学生呢,
就会遭到一场噼里啪啦的大雹子

5雨: 嗯, 哎, 那姥姥和爸爸去
有什么不一样的呀?

6雪: 没什么不一样的呀。

家长会又不是运动会,
不分姥姥组和爸爸组。

7雨: 既然都是噼里啪啦的大雹子,
那为什么刘星让姥姥去不让爸爸去呢?

8雪: 嗯, 有这(儿)事吗?

9星: 小雪, 小雨, 帮个忙啊!

10雪, 雨: 什么忙?

11星: 老爸生气是什么样啊?

12雪: 问这个干吗?

13星: 咳, 我不是不了解他吗,
他当我老爸才俩月,
当你们老爸都好久了吧?
哼, 你们肯定知道。

- 14雨: 我可没惹过老爸生气。
 15雪: 我也是。
 我呢, 只会让老爸感到自豪,
 尤其是在开家长会的时候。
 16星: 哎呀, 拜托了!
 我就是想知道开完家长会以后,
 老爸是怎样惩罚犯错误的孩子的。
 16雪: 那我就知道了。
 17雨: 因为我们都是好孩子。
 18星: 哎呀, 天哪! (我的天)
 我跟你们没有共同语言! 哼!

대화의 참여자의 연령순서는 雪, 星, 雨이다. 6살인 雨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예11는 雨의 친 누나인 雪가 雨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중이다. 9에서 새아빠가 학부모회에 참가할까봐 걱정스러운 星이¹³⁾ 雨와 雪에게 새 아빠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해 등장하면서 3명의 대화로 이어진다.

담화는 초등 고학년으로, 3명 중 최고연령층에 해당하는 雪의 비유 섞인 설명(4, 6)을 제외하고는 9이하의 모든 발화가 직접화행(비함축적 표현)으로 구현된다.

예2~7의 자질관련 분석과 예8~11의 연령관련 분석을 통해 함축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3) 새 아빠인 夏가 학부모회에 참석하면 星의 불건전한 학교생활이 드러날 것이고, 夏가 이를 梅에게 전달하면 梅는 星을 호되게 혼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몹시 두려운 星은 이미 적극적으로 할머니에게 학부모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권유하고(예5 참조), 夏의 참석을 만류하려고 해보았지만, 夏는 아버지의 본분이라며 참석을 결심한다.(예8 참조) 다급해진 星은 夏의 친 딸과 아들인 雪와 雨에게 달려와 夏가 화낼 때 어떠한 모습인 지를 묻는다.

합축의 사용

성인간의 담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동태성, 취소성을 갖는다.¹⁴⁾
 성인과 어린이의 담화에서는 가변적으로 사용된다.¹⁵⁾
 성인과 어린이의 담화에서 고의로 사용되지 않기도 한다.¹⁶⁾
 보통 어린이간의 담화에서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불가하다.¹⁷⁾

4. 예의원리와 의사소통의 성패

본고는 지금까지 시트콤 담화분석을 통해 담화에 존재하는 합축의 보편성, 동태성, 취소성 등의 자질과 연령에 따른 합축의 사용양태를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담화분석1>에서 다룬 ‘대화의 격률의 위반’과 본고에서 주로 고찰한 ‘합축적 발화의 사용여부’, ‘연령을 배려한 발화의 선택’ 등 화자의 모든 노력은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담화에서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기제 중의 하나인 ‘예의원리’을 살펴보자.

예12.(SSGD scene2)

22梅: 妈!

人爷爷可不是这意思啊。

23姥: 他就是这个意思, 啊!

你不信哪,

没关系呀, 啊。

我立马上医院去,

我开一证明来,

你总没得说了吧?

14) 예2~7

15) 배려적 사용 : 예8은 상대방 배려, 예4는 제3자 배려

16) 배려적 미사용: 예10

17) 불능적 미사용: 예11

24爺：有这个必要吗？

咱不管是真的假的，啊
还是老的少的，
我呢，
就是提醒大伙要节约用电，
随手关灯。
啊，这样，
它不单单是几个钱的问题。

예12의 배경은 이러하다. 밤에 누군가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 쑤는 媯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媯는 媯를 대신해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설사가 나서 밤에 들락거리다가 불 끄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한다. 쑤는 이를 믿지 않으려는 눈치다. 媯는 바로 앞선 발화에서 쑤가 자신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고 펼쩍 뛰었다.

예12의 22에서 梅는 쑤를 두둔하며 시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중재한다. 23에서 媯는 ‘못 믿겠다면 병원에 가서 증명서를 발부받아 오겠다’고 하고, 24에서 쑤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하면서 ‘媯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기절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원래의 다툼을 해소시켜 보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媯와 쑤는 사돈기간이다. 媯의 媯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인한 거짓 발화가 자칫 두 노인의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쑤는 이를 피해가며 자신의 견해를 거듭 밝힌다. 쑤의 이러한 발화선택은 媯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성인의 대부분의 담화는 ‘예의원리’를 준수하고, 때로는 예의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기도 한다. 앞의 예2에서 夏가 梅의 질문에 “별 말 안했어”라고 말하는 것도 梅와 媯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예의원리의 준수) 질의 격률의 위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8)

한편, 아래의 예에서처럼 예의원리가 위반되기도 한다.

18) <담화분석1>참조.

예13.(HBB scene6)

3雨: 爸, 您回来啦。

4星: 嗯

5姥: 东海!

6夏: 啊, 妈。

7姥: 嗯

8夏: 我先回去拿凉水洗洗脑袋。

夏는 좋은 아빠가 되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금 학부모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늦게 까지 기다리고 있던 6살 雨는 기다리던 아빠가 돌아와서 반갑고, 학부모회회가 어떠했을지 예상하고 있는 星과 姥는 夏가 받았을 충격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姥가 5에서 먼저 夏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체를 하지만, 6에서 夏는 건성으로 “네.”라고 말한 뒤, 아무 말이 없다. 이에 7에서 다시 姥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8에서 夏는 “저는 우선 찬물로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요”라며 대화를 종료한다.

도리에 의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사위인 夏는 장모인 姥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적어도 장모인 姥가 자신을 불렀을 때, 예의 바른 태도로 좀 더 공손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夏는 그렇지 못하여 8에서 인사는커녕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는 예의원리에 위반한다. 그런데 夏는 왜 예의원리를 위반했을까? 시트콤 전체를 감상해보면 적어도 夏가 고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즉, 夏는 충격으로 인해 예의범절을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한다. ‘불능’에 의한 예의원리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예의원리의 고의적인 위반 사례를 보자.

예14.(XMW上 scene7)

8梅: 小雪有很多习惯。

以后咱们大家, 都互相慢慢习惯。

9夏: 对!

10雪: 那恐怕得你们习惯我了!

反正我是不会习惯别人的!

雪는 얼마 전 가정을 이룬 아빠夏와 새엄마인 梅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박대를 당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예14의 8에서 梅는 雪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잘 맞춰 가자’라고 하지만, 10에서 雪는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뜻을 박는다. 雪의 이러한 무경우한 태도는 보통의 중국인 가정에서는 당연히 훈계의 대상이 될 터이지만, 새가정을 이룬 梅와 夏의 입장에서는 참고 인내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충명한 雪가 모를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雪는 고의로 예의원리를 위반한다.

이상 예12~14의 담화에서 예의원리가 담화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여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연히 상기의 모든 예는 II, III장에서 살펴본 함축의 보편성 및 연령에 의한 사용여부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¹⁹⁾는 <담화분석1>에 이어 중국어 시트콤인 ‘家有儿女’를 담화코퍼스로 사용하여 함축의 자질과 연령별 사용상황을 분석, 고찰하였다.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담화분석1>의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화용론의 원리를 제2언어학습에 적용하여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담화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

화용적 각도에서 담화코퍼스를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협력원리 및 예의원리를 지킨다.

19) <담화분석2>로 약칭한다.

20) <담화분석1>과 <담화분석2>의 요약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는 협력원리 및 예의원리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 이를 위반하는데, 이는 청자에게 용인되며 이는 대부분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연결된다.

합축은 보편성, 동태성, 취소성의 자질을 갖는다.

합축은 참여자의 연령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 이해된다. 성인화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어린이와의 담화에서 합축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어린이 화자는 합축의 이해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모국어 화자는 대체로 6세를 전후해서 발화의 ‘언표내적 의미(합축)’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실제 담화가 단순히 적법한 구조로 나열된 문장이 아니며, 축자적 의미로만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²¹⁾ 화용론은 언어가 발화되는 상황을 고려한다. 그래야 그 언어(발화)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언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문장단위의 교수·학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수요가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담화’를 언어의 단위로 상정하여 언어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걸 맞는 언어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습자는 중국어 대화담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내용의 다양한 발화를 시도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본고의 고찰은 담화의 이해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원리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비단 중·고급학습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초급 학습자에게도 화용적 시각의 언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학습의 효율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²²⁾

21) 여기서의 ‘담화’는 ‘담화코퍼스(중국어 시트콤 담화코퍼스)’를 가리킴. 차후 보다 많은 유형의 담화분석을 통해 합축의 보편적 사용상황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화용적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학습자가 성인이고 모국어 현장에 신속한 투입이 필요한 경우, 화용적 지식의 부족으로 낭패를 경험하는 일을 피하려면 초급 수준에서부터 이에 필요한 화용 지식과 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저서]

-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출판사, 2007.
- 이종철, 『국어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역락, 2004.
- 이준희, 『간접화행』, 도서출판 역락, 2000.
- D.Sperber-D.Wilson 공저, 김태욱·이현호 공역, 『인지적 화용론-적합성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한신문화사, 1993.
- J.L.오스틴 지음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 Levinson 지, 이익환·권경원 공역, 『화용론(Pragmatics)』, 한신문화사, 1992.
- Peter Grundy, 『Doing Pragmatics』, Arnold, 1995.
- Jacob L. May, 『Pragmatics』, Blackwell Publishers, 1993.
- Geoffrey Leech,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Singapore Publishers, 1983.
- 耶夫·維索爾倫(Verschueren), 錢冠連等譯, 『語用學詮釋(Understanding Pragmatics)』, 清華大學出版社, 2003.

[논문]

- 김종혁, 「중국어 담화의 대화함축 분석」, 『中国学论丛』 Vol25 No.1, 2008.
- 박성일, 「한, 중 지시화행 수행 형식에 대한 대조분석」, 『先淸語文』 Vol.35, 2007.
- 양경미, 「화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어 언어현상」, 『언어와 언어학』 제57집, 2012.
- 양경미, 「함축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시트콤 담화분석1-대화의 격률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21호, 2015.6.
- 오지희, 「현대중국어 중급교재의 담화 화용론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2.

- 유은미, 「시트콤 ‘家有儿女’의 중급 중국어 듣기·말하기 활용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석민,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 『한국어 의미학(Korean Semantics)』, Vol.34, 2011.
- 이민우, 「中国语에서의含蓄现象에 관한 연구」, 『中国学报』, Vol. 48, 2003.
- 이선희, 「가추법과 중국어 함축 의미」, 『중국어문학』 Vol. 48, 2006.
- 이유미, 「화용론과 한국어 교육」, 『语文论丛』 Vol.43, 2010.
- 장석진, 「한국어 화행동사의 분석과 분류」, 『어학연구』23권 제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7.9.
- 주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 화행 응대에 대한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白杨, 「听力理解中的会话含义」, 『河南商业高等专科学校学报』, 2010年第2期.
- 霍永寿, 「从言语行为实施看话语标记语的语用功能」, 『外国语言文学』, 2005.
- 姜望琪, 「会话含义新解」, 『外语与外语教学』, 2012年第3期.
- 刘绍忠, 廖凤荣, 「海外汉语语用学研究：现状及启示---言语行为系列研究之一」, 『外国语』, 2006, 2.
- 陆昌萍, 「教师课堂评价言语行为的语用特征」, 『语文建设』, 2009.5.
- 倪鹏, 「言语行为理论及其对英语教学的启示」, 『英语教学』, 2009, 5.
- 孙玉, 「会话含义的可取消性再探」, 『外国语』, 2010.5第33卷第3期.
- 王晓飞, 「论取消会话含义的潜在可能与实际发生-兼驳“含义不可取消论”」, 『外语与外语教学』, 2012年第3期.
- 吴剑峰, 「汉语言语行为动词的元话语功能及句类地位」, 『宁夏大学学报』, 2008.
- 杨惠莹, 「言语行为理论与会话含义理论的不同点之比较分析」, 『佳木斯教育学院学报』, 2011年第5期.
- 张鲁昌, 「对外汉语教学中言语行为的语用条件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 2005, 9.
- 曾伟英, 「会话含义理论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 『安徽文学』, 2010年第5期.

Abstract

Analysis II of Discourses in Chinese Sitcom Based 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 focused on the features of implicature and the age of the participants -

Yang, Kyong-mi

This study is a follow up to “An analysis of discourses in Chinese sitcom based 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 focused on the maxims of conversation.” The same conversational corpus (5 sessions of 家有儿女) are used as in the previous study. The major features of implicature, such as universality, reversibility and dynamics and the situation of using implicature according to the age group are analyzed.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adult speakers usually use implicature, which can be changed or canceled as the conversation is continued. Second, implicature is limitedly used and understood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age. Second, implicature is limitedly used and understood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age. The younger the children are, with more difficulty the implicature is used and understood. The older they are, the easier it is—according to the result, approximately children of age 6 can understand and use implicature. Adult speakers selectively utter implicature, by using a piece of implicature based on the contract with a third person, or by not using it on behalf of the children. It is desired that this study could offer the principles for understanding conversations and successful communication, so that they are utilized for learning a second language.

Key words: Chinese sitcom ‘家有儿女’, corpus, discourse, utterance, conversational implicature, feature of implicature, universality, reversibility, dynamics, age group, communication

투 고 일 : 2017. 1. 10. / 심 사 일 : 2017. 1. 15.~ 2017. 2. 13. / 게재확정일 : 2017. 2. 20.